

Walt Whitman의 초월주의 시학*

신 정 현

(인문대학 영문학과)

삶에 고통이 있는 한 그것을 초월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과 모양은 시간과 장소와 그것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에 따라 적어도 얼마간은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초월의 방식도 얼마간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는 그것이 삶의 고통을 초월하려는 하나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여느 초월주의와 같지만, 특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존재했던, 주어진 역사의 조건하에서 생성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초월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여느 초월주의와 다르다. 그러므로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초월의 필요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결과 19세기 미국에서 어떤 형태의 초월주의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것이 여느 다른 초월주의와는 초월의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를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Columbia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와 같은 문학사에서는 대체로 영향관계를 따져 미국의 초월주의를 독일의 이상주의나 동서양의 어떤 신비주의의 파생물로 이해한다. David Reynolds가 쓴 *Beneath The American Renaissance: The Subversive Imaginat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Melville*과 같은 역사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책들은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개혁주의의 일환으로 미국의 초월주의를 이해하려 한다. Lawrence Buell은 그의 책 *Literary Transcendentalism: Style and Vision in the American Renaissance*에서 미국의 초월주의를 배태한 미국 문학의 전통과 그 결과 생겨난 미국 초월주의의 문학적 스타일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R.W.B. Lewis와 같은 신화비평가들은 신화 속의 인물들—예를 들어, 성경 속의 아담이나 세속 신화의 “고결한 원시인”(noble savage)—에 대한 미국적 대형(antitype)을 문학작품 속의 인물이나 시적 자아에서 찾음으로써 미국적 초월주의를 정의하려 한다.

영향관계를 따져서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를 이해하려 할 때, 이 시기 미국의 초월주의의 모양을 밝혀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생겨나게 한 필요가 무엇이었던지를

* 이 논문은 1995년도 대학발전기금 연구비를 받고 쓴 것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초월주의를 단순히 19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의 한 가지로, 혹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초월주의나 신비주의의 혼합물 정도로 규정하고 마는 위험이 따른다. 또한,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개혁주의의 맥락에서 미국의 초월주의를 이해하려 할 때, 그것이 이 시기 미국을 휩쓸었던 다른 개혁주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개혁주의적 충동에서 그 생성원인을 찾고 개혁주의의 차원으로 지나치게 한정해서 그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가 바탕으로 했던 철학을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낳게 되며, 그러므로 그것이 지닌 심리적 가치를 과소평가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그리고, 성경 속의 아담이나 세속 신화의 “고결한 원시인”에서 19세기 미국의 작가들이 창조한 초월주의적 인물들의 원형을 찾음으로써 미국적 초월주의를 설명하려 하는 것은 그 생성원인과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전제의 한정성으로 해서 그들의 성격을 곡해하거나 적어도 지나치게 일반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Emerson에서 시작된 미국의 초월주의가 Whitman의 시에서 어떤 모양으로 구현되는가를 따져 밝힘으로써 미국적 초월주의의 역사적 필연성을 추적하고,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일반화된 정의를 보다 구체화된 모습으로 보여 주려 할 것이다. Whitman의 시에 나타난 초월주의도 어떤 이상주의나 어떤 신비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초월의 보편적인 틀, 즉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the higher law)—종교의 문제이든, 철학의 문제이든, 윤리의 문제이든—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merson의 초월사상에 감화를 받은 Whitman이 그의 시 속에서 찾은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은 유럽의 낭만주의나 동시대 동서양의 어떤 신비주의와는 다른 특별한 모양의 육감적, 구원지향적 초월의식을 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유럽의 낭만주의나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심리적 동인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hitman의 초월주의가 육감적, 구원지향적 초월의식을 담고 있다는 전제가 정당할 때, Whitman의 시적 자아가 성경 속의 아담이나 속세 신화의 “고결한 원시인”의 범주에서만 해석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Whitman의 초월주의가 특별한 모양의 육감적, 구원지향적 초월의식을 갖게 된 심리적 동인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만약에 Whitman의 시적 자아가 아담이나 “고결한 원시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의 시적 수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논문에서는 주로 위의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초월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려 할 것이다.

I. 역사에 대한 강박관념

역사는 경험에서 생겨나는 환상과 믿음과 지혜로 창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 신세계로의 이주로 나라를 건설한 미국인들에게는 경험이 역사를 창조했다기 보다 역사가 경험을 창조했다. Robert Frost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낭송했던 시 “완벽한 재능”(“Gift Outright”)에서 간과한 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이기 전에 이미 이 땅은 우리의 것이었다. 옛 땅에서의 무거운 기억이 끊임없이 현재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경험은 거의 언제나 세상을 보다 잘 볼 수 있게 하지만, 과거의 무거운 기억을 이고 신세계로 온 미국 이주민들에게는 옛 땅에서의 경험은 때때로 거짓 기준을 만들어 “이미” 그리고 “거기”에 의식을 고정시키는 구실이 되곤 했다. 그러므로, 많은 미국인들이 Frost처럼 구역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욕망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16년에 Henry Ford가 간결하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많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얼마간은 허튼 소리”에 불과했고, “간직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역사”는 “현재 우리가 만들어 가는 역사”였다.¹⁾ 그들은 경험이 신화와 전통을 만들고 신화와 전통은 제 차례가 되어 습관과 가치와 기대를 창출하여 의식을 낡은 틀 속에 묶어 놓는다고 믿고 있었다.

미국인들을 사로잡아 온 또 하나의 강박관념은 믿음과 신념은 어떤 형태로든 아이러니를 낳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믿음과 신념은 유한한 개체의 제한된 인식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무경험의 세계를 경험 이전에 이미 포괄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경우 믿음과 신념은 이상적, 또는 환상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아니면 인간이 선형적으로 타락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에도 역사는 언제나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믿음과 신념을 요구하고, 자신에 대하여 늘 혁명적이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과 신념이 경험적 현실에 억지로 덮어 씌워진 미국의 역사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청교주의나 독립정신의 이상이 아이러니가 되어 미국사 속으로 되돌아 왔을 때, 다시 말해 “언덕 위에 햇불을 밝히려겠다”던 퓨리탄 선조들의 원대한 꿈이나 “자유와 평등과 행복의 추구를 자명한 권리로 믿는다”는 독립선언문의 이상주의가 지배와 정복을 “명백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세속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과거의 계율과 체도에 대한 거부 의 몸짓을 통해 그들의 현재를 확인하려 했다.

미국의 19세기는 과거의 묵은 틀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강박관념과 역사의 아이러

1) Henry Ford, “Interview in Chicago Tribune,” May 25, 1916. Recit. from *The Columbia Dictionary of Quotation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3), p. 408. “History is more or less bunk. It’s tradition. We don’t want tradition. We want to live in the present and the only history that is worth ... is the history we make today.”

니에 대한 초월의 충동이 특별히 강했던 시대이다. Emerson은 1836년에 쓴 자신의 에세이 “Nature”의 모두(冒頭)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우리들의 시대는 과거지향적이다. 우리는 조상들의 분묘를 건설하며 산다. ... 앞서간 세대들은 신과 자연을 대면하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 신과 자연을 보고 있다. 우리는 왜 우주와의 시원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는가?” 그리고 그의 에세이 “The Poet”에서 계시와 해방의 힘을 가진 해방자 시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19세기 미국사회가 노동의 착취, 계급이나 인종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매춘, 정치적 타락, 남북의 대립, 노예제도의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로 몸살을 앓으며 가치의 극심한 혼란과 도덕의식의 급격한 저하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이 시대 미국의 뜻있는 사람들은, Emerson 처럼, 구역사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보이며, 이상사회의 건설, 절제와 금욕, 도덕의식의 개혁, 반노예제도, 노동환경의 개선 등을 기치로 하는 여러 갈래의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모든 개혁주의가 미래에 대한 참신한 비전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다. Melville의 “도대체 그게 아니야!”(“No! in thunder”)라는 한 마디 말에 요약되어 있듯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된 이 시대의 많은 개혁운동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어떤 형태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경직된 교훈주의와 이상주의에 빠져 있었다.²⁾

19세기 전반기 미국사회에 팽배했던 개혁의 충동이 이 시대의 초월지향적 문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200년의 정착의 역사가 낳은 역사의 아이러니와 구세계의 낡은 틀에 갇혀 있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망망한 신대륙에서의 경험을 깊이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Cooper, Emerson, Thoreau, Whitman, Hawthorne, Melville, Mark Twain 등의 19세기 미국의 작가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때로는 문화적 포로로, 때로는 역사에 대한 반역자로, 때로는 초월주의자로 정의하면서 구세계적 편견에서 벗어난 순수한 눈으로 그들의 세계를 새로이 발견하기를 희망했고, 구세계의 인습과 제도와 사고방식에 젖지 않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미국적 인물을 창조하고자 했다. Tonny Tanner가 그의 논문 “미국문학의 천진사상(天真思想)”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젊음, 새로운 세계”를 찾고 있었다.³⁾ 구시대 역사의 불건강한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Emerson적 욕구와 해방자 시인을 고대하는 Emerson적 갈망이 담긴, 구역사의 허물을 벗고 신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물이 그들의 손에서 창조된 것이다. D.H. Lawrence가 *Studies in Classical American Literature*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미국은 늙어만 늙어만 가다 옛 겹질 속에서 고통

2) David S. Reynolds, *Beneath the American Renaissance: The Subversive Imaginat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Melvil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55.

3) Tony Tanner, “Ideas of Innocence in American Literature,” in *Literature and Western Civilization: The Modern World II*, ed. David Daiches et al. (London: Aldus Books), p. 417.

으로 몸을 비틀고는 마침내 허물을 벗고 새로운 젊음을 얻게” 된 것이다.⁴⁾

19세기 미국의 주요 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나 시적 자아들은 대부분 역사진보의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유럽문화의 우월성을 거부하고 자연과 인간의 유린과 약취를 노리는 구세계적 정복충동에 대해 비판적이며, 원죄의 비극성을 근간으로 하는 청교주의 유산에 대해 골똘히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창의적이면서도 자연에 순응하는 원초적 인간의 원시적 삶에 강한 향수를 보이며, 종교와 문명에 닿기 이전의 때묻지 않은 상태의 순결한 삶을 동경한다. 그들은 유럽의 때묻은 문명에 대한 대척적 인물로서, Jean Franco가 그의 논문 “기품있는 원시인”에서 기술한 대로, 행동에 있어서 “자유롭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지만, 절제할 줄 알고, 무리가 없는” 고결한 원시인들이다.⁵⁾ Cooper 소설의 주인공 Natty Bumppo나, Thoreau의 수필집 *Walden*의 주인공, Melville의 소설 *Typee*의 화자, Hawthorne의 “좋은 젊은이 브라운”, Whitman의 시적 자아 Walt, Mark Twain의 Huck Finn 등은 모두 문명의 짐을 벗어 던지고 문명사회의 잔인함과 복잡함을 피해 양심의 무한한 자유가 있는 숲으로, 강으로, 풀밭으로, 혹은 대양의 외딴 섬으로 떠난다.

자연의 자족기능이 문명에 의해 깨어졌다고 생각하며 자족한 자연상태에서 행복의 비전을 찾는다는 점에서, 문명화된 인간이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의식을 치른다는 점에서, 19세기 미국의 주요 작품들의 많은 등장인물들은, Tonny Tanner나 Jean Franco가 주장하는 것처럼, 루소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문학의 주인공들이나 시적 화자들은 대부분 문명은 삶을 복잡하게 하고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명으로 왜곡되지 않은 자연상태로 돌아갈 때 인간은 순화된 지성을 간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문명을 넘어서려는 초월의 욕구를 가졌다고 해서, 단순히 자연상태의 인간이 구현하는 선의 가치와 자연에 내포된 끊임없는 생성력을 믿는다는 사실로 모든 루소적 인물들을 하나의 범주에 담아 평가할 수는 없다. 어떤 부류의 루소적 인물들은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역사를 생성시킨 도덕물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현세적 도덕물을 찾으려 할 것이며, 어떤 부류의 루소적 인물들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초탈하게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찾아 미래의 역사에 대한 초월적 비전을 보여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세기 미국문학에 등장하는 많은 루소적 인물들을 아담의 패러다임과 같은 하나의 패러다임에 비추어 평가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현실너머에서 현실을 관류하는 어떤 절대신의 정언명령을 찾아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려 하는 Emerson이나 Whitman의 화자나 시적 자아는 아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차원의 초월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4) D. H. Lawrence, *Studies in Classical American Literature* [1922] (New York, 1955), p. 64.

5) Jean Franco, “Noble Savage,” in *Literature and Western Civilization: The Modern World II*, p. 588.

II. 초월주의자 Walt

*The American Adam*에서 R.W.B. Lewis는 19세기 미국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장을 “사회 속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사회 밖으로의 성장”이며, 아담의 천진성을 향한 “역성장”(逆成長: reverse initiation)이라고 주장한다.⁶⁾ Lewis에 따르면, 19세기 초 미국문화가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문화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디에서 미국인의 전형을 찾을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 미국의 작가들이 찾은 가장 멋진 전형은 성경 속의 천진무구한 인물로서 경험이전의 아담이었다. 천진무구함과 창조정신, 그리고 신세계에서 겪게 되는 복잡하고도 비극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인들의 자의식 형성과정에 가장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인물은 성경 속의 아담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Lewis는 미국인들의 자의식 형성과정이 변증법적이라는 것이며, 19세기 미국문학은 아담이라는 인물에 대한 상반된 여러 견해들이 충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very culture seems, as it advances toward maturity, to produce its own determining debate over the ideas that preoccupy it: salvation, the order of nature, money, power, sex, the machine, and the like. The debate, indeed, may be said to *be* the culture, at least on its loftiest levels—, for a culture achieves identity not so much through the ascendancy of one particular set of convictions as through the emergence of its peculiar and distinctive dialogue [The] historian looks not only for the major terms of discourse, but also for major pairs of opposed terms which, by their very opposition, carry discourse forward.⁷⁾

Lewis는 아담의 원죄를 철석같이 믿는 정통파 칼비니스트 작가들에게서 정(正)의 힘이,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담의 정신적 순결성과 원죄불회귀설을 믿는 Emerson과 Whitman같은 초월주의 작가들에게서 반(反)의 힘이, 그리고 원죄에 수반되는 타락과 고통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믿는 Hawthorne, Melville, Henry James같은 작가들에게서 제 3의 합(合)의 힘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아메리카 대륙의 현재사야말로 인간의 원죄성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며 원죄의 과거를 골똘히 곰씹는 “되새김의 무리”(the party of memory)들에 대한 저항으로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가 생겨났으며, “과거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양심을 가진 인물”의 출현을 갈망하는 “희망의 무리”(the party of hope)들에 대한 저항으로 “비꿈의 무리”(the party

6) R.W.B. Lewis, *The American Adam: Innocence, Tragedy and Tradi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1959), p. 1.

7) Ibid. pp. 1-2.

of irony)가 등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꿈의 무리”에 속하는 Hawthorne, Melville, Henry James같은 “비관론적 낙관론자”들의 문학이 악에 대한 경험과 앎으로 보다 높은 도덕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고도의 신념을 표현하는 문학으로서 보다 세련된 역사초월의 문학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미국문학의 작중 주인공들이 원초적 천진성을 향해 “역성장”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구역사의 질곡에서 풀려나 원죄의 무거운 짐을 벗은 완전한 자유인 아담의 몸으로 신세계에서의 앎과 경험을 통해 보다 높은 도덕의식에 도달하게 된다는 Lewis의 이론은 19세기 미국문학에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초월의 충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훌륭한 틀을 제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Lewis의 변증법은 그 이론이 지닌 전제의 한정성으로 해서, 즉 19세기 미국문학의 작중 주인공들이 터득하는 앎의 성격을 아담의 틀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초월주의자들의 직관적, 초월적 앎의 심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해, Lewis의 변증법은 문학을 정반합의 발전의 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Emerson이나 Whitman과 같은 초월주의자들의 시간 속에 내재한 초시간의 경험과 경험 속에 내포된 영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초자연적 법칙에 대한 이해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아담의 페러다임으로 초월주의 철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구역사에 대한 초월의 충동을 가졌던 기독교 신화 속의 두 인물—현세주의자 아담과 초월주의자 그리스도—이 앎을 터득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아담도 그리스도처럼 체제전복적이고 과거파괴적이지만, 그는 초월주의자는 아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가치나 강령에 불복하고 새로운 가치와 강령을 추구함으로써 역사를 새로이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양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보다 숭엄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세계와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와는 달리 아담은 현계(顯界)에서의 삶을 위해 초월적 존재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계율에 거역하며 자연법의 숭엄성과 신의 계율로도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한 본유적 권리,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새로운 비전, 즉 인간적 차원을 벗어나 세계 만물을 지배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찾으려 하며, 아이러니에 종속된 현세에 대한 초월을 시도한다. 아담적 현세주의자와는 달리 그리스도적 초월주의자는 언제나 “무엇이 보다 신의 뜻에 가까운가?”라는 물음에 비추어 “무엇이 보다 인간적인가?” “무엇이 보다 자연스러운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 한다. Tolstoy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적 초월주의자는 “양심의 빛을 받으면 절대선의 신(神)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는 자이다.⁸⁾ 그는 초월적 절대자를 꿈꾸고, 속세의 인간들에게 신의 계시와 약속을 전함으로써 사람들

8) Recit. From “Civil Disobedience,” in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Studies of Selected Pivotal Ideas*, Vol. I, ed. Philip P. Wiener et al.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3), p. 438.

의 삶을 절망에서 구하려 한다.

Lewis의 이론에 비추어 *Leaves of Grass*을 노래하는 Whitman의 낙천적 자아를 설명할 때, 그는 단순히 새로이 정화된 정신의 순결함으로 부풀어 오르는 미국을 찬미하는 천진한 아담으로서 군집생활과 문명과 역사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는 천진스런 미국적 자아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Whitman의 시적 자아를 평가한다 해도, 그는 “털갈이”의 의식을 마친 자로서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원죄의 유혹을 모르는 천진한 인간이며, 구세계의 역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독한 창조자이고, 앞을 향해 발을 내딛는 응비의 기상(氣像)을 가진 자일 뿐이다.

The fullest portrayal of the new world's representative man as a new, American Adam was given by Walt Whitman in *Leaves of Grass* in the liberated, innocent, solitary, forward-thrusting personality that animates the whole of that long poem. *Leaves of Grass* tells us what life was made of, what it felt like, what it included, and what it lacked for the individual who began at that moment, so to speak, where the rebirth ritual of *Walden* leaves off. With the past discarded and largely forgotten, with conventions shed and the molting season concluded, what kind of personality would thereupon emerge? What would be the quality of the experience which lay in store for it?⁹⁾

더욱이, 한 걸음 물러서서 Lewis의 변증법을 뒤집어 보면, Whitman의 Walt는 “비꿈”의 문학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인물로서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에 불과하다. Lewis의 주장대로라면, Hawthorne이나 Melville, 또는 Henry James의 소설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Whitman의 자아는 경험의 아픔에서 우리나라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진 자가 못되기 때문이다. Hawthorne이나 Melville, 또는 Henry James가 악에 대한 앞으로 보다 높은 도덕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반면에, Whitman은 단지 보다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웅심치 못한 인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성장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Cooper에서 Hawthorne과 Melville을 거쳐 Henry James에 이르는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Leaves of Grass*의 자아와 같은 천진한 인물들은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필연적으로 악을 경험하고 악에 대해 알게 될 것이며, 적대적인 세계 한 복판에서 외로이 싸워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Lewis의 변증법에 비추어 Whitman의 Walt를 평가하면,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아담으로서 선악과 시비를 가릴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자아이며, 분별력을 얻기 위해 신세계에서의 더 많은 악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철부지이다. 그러나, Whitman의 Walt를 그리스도적 초월주의자로 해석하면, 그는 세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위대한

9) Lewis, p. 28.

자연의 책을 정독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할 새로운 성서를 기획하는 구원지향적 인물이 된다. Whitman의 Walt는 Hawthorne이나 Melville, 또는 Henry James의 소설의 주인공들 못지 않게 문명의 타락에 대한 강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건강한 세계에 대한 보다 높은 공동체적 비전을 보여준다. 그는 유니테리언리즘의 교리에 따라 신에게 도달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믿으며, 태어나기도 전에 저질러진 죄의 죄가를 원죄라는 이름으로 후손들이 대물림해야 한다는 칼빈주의의 교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세계를 짊어 지고 살아가는 도덕적, 지적 총체로서 신세계와의 만남의 경험으로 만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만물을 새롭게 해석하며, 만물을 그의 필요에 맞게 변형시키는 단순한 창조적 인물이 아니라 만물의 존재에서 절대신의 초월적 의미를 찾는 자연신의 사도이다. *Leaves of Grass*의 시인 Whitman은 계절의 순환과 만물의 생성소멸에서 감히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주적 성의 아름다움과 우주적 생명의 힘찬 맥박을 느끼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다. Lewis가 지적한 대로, 어떤 인물의 성숙에 대한 궁극적인 척도가 “숙명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Whitman의 낙천적 자아는 Hawthorne이나 Melville, 또는 Henry James의 소설의 주인공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즉 아담에로의 역성장이 아닌 그리스도에로의 초월로 성장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Whitman의 Walt는 19세기 미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신의 정언명령(正言命諭)을 들고 전하는 그리스도적 초월주의자이다. 1977년 John Updike가 Pierpont Morgan 도서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적한 대로, Whitman의 자기중심사상은 어쩌면 자기신격화에 가깝다.

[Whitman's] egoism is scarcely an adequate word for what obtains here: the unabridged Webster's dictionary supplies, with the warning "rare", the word "egotheism." The hero of "Song of Myself" is a god, whose palms cover continents, but also a God, who enters into the egos of the suffering¹⁰⁾

Whitman의 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삼위일체의 엄숙한 신이 아닌, 우주의 생성사멸을 통해 자신의 숭엄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연신이다. 퓨리턴 신정체제의 공동체 정신이 아득히 멀어지고 산업자본주의의 잔혹함이 아직은 크게 위력을 떨치지 못하던 19세기 중반, E. H. Miller가 지적한 대로, “원시의 망망한 대륙 미국은 모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에덴의 동산을 잃고 난 이래로 인류가 맛보지 못한 원시의 무한함과 숭엄함을 보여 주었다.”¹¹⁾ Whitman은 원시의 숭엄함이 살아있는 19세기

10) John Updike, "Whitman's Egotheism," in his *Hugging the Shore: Essays and Criticism*, 1983. Reprint. in *Poetry Criticism*, Vol. 3, ed. Robin V. Young (Detroit: Gale Research Inc., 1991), p. 414.

11) E. H. Miller, *Walt Whitman's "Song of Myself": The Mosaic of Interpretations* (Iowa: University of Iowa, 1989), p. 46.

의 거대한 미국에서 끝없는 황홀의 흘러로 고결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자연신을 발견했다. 퓨리턴 선조들의 신은 죽음의 참혹한 이미지로 겁먹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했었다. 그러나, Emerson의 가리킴을 좇아 새로운 눈으로 거대한 미국의 역동하는 자연을 보았을 때 퓨리턴 선조들의 잔인한 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Whitman은 바로 자신이 생명의 승업함을 전하는 신의 사자가 된다. Updike가 말한 대로 “Song of Myself”를 읊조리는 시인은 그 자신이 곧 신이다. 그의 노래는 “찬미하고 노래부름으로써” 고통받는 자아를 생의 향연장으로 나오게 하는 찬송이다.

“Song of Myself”의 서른 세 번째 가름에서 Walt가 고백하듯이, Whitman의 삶의 주변은 언제나 비극과 고통으로 가득했고, 그의 삶은 “사냥개에 쫓기는 노예”의 형국이었다.

I understand the large hearts of heroes,
 The courage of present times and all times,
 How the skipper saw the crowded and rudderless wreck of the
 steam-ship, and Death chasing it up and down the storm, ...
 And chalk'd in large letters on a board, *Be of good cheer, we will
 not desert you;* ...
 All this I swallow, it tastes good, I like it well, it becomes mine,
 I am the man, I suffer'd, I was there.

 The hounded slave that flags in the race, leans by the fence, blowing,
 cover'd with sweat,
 The twinges that sting like needles his legs and neck, the murderous
 buckshot and the bullets,
 All these I feel or am.

I am the hounded slave, I wince at the bite of the dogs,
 Hell and despair are upon me, crack and again crack the marksmen,
 I clutch the rails of the fence, my gore dribs, thinn'd with the ooze
 of my skin, ...
 I do not ask the wounded person how he feels, I myself become
 the wounded person,

낮은 목소리의 형극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Whitman의 시인 Walt의 생애는 실제로 가시밭길의 삶을 살았던 어느 누구의 삶에 못지 않게 고통과 번뇌로 가득하다. Miller가 지적한 대로, “The Sleepers”나 “Out of the Cradle Endlessly Rocking”과 같은 Whitman의 초기시는 형극의 삶의 시적 형상화이다. 무능한 아버지와 정신분열 증에 걸린 형제들, 오금주는 어머니, 동성에 경향의 자아—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애물들이었다.¹²⁾ 그러나, Malcolm Cowley가 시사한 대로, Whitman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은 “우주적 생명력의 장엄함”과 그것을 노래하는 대자연의 합창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 그리고 시인 Whitman은 우주적 생명력의 장엄함을 보지 못하는 어떤 전통도 거부하는 스스로 완전한 인간이 된다.¹³⁾

Whitman의 시는, Clarence Darrow가 1899년에 쓴 자신의 에세이에서 풀이 했듯이, “주위를 둘러 땅과 하늘과 바다의 신비를 바라보고 어떤 형식이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주의 기적과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는 원시적 음유시인의 격정적인 찬송”이다. Whitman은 그의 시 속에서 “닿아 해진” 문명 너머에, “복잡한 도회와 병든 인간들의 불건강한 욕망과 탄력성을 잃은 종교와 거짓 도덕”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는 신의 손길을 보고 느끼는 시인 Walt를 “산이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아침의 미풍처럼 [우리들에게] 보낸다. ...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경건한 영혼을 가졌으며, 그의 시의 구석구석은 신의 옹호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시에서] 높은 산, 깊은 계곡, 광활한 평원, 넓은 바다—감정과 욕망과 정열—즉, 온갖 종류의 삶—,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창조주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신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이며, 어느 하나 신성하지 않은 것이 없다.”¹⁴⁾

Whitman에게 삶의 고통과 비극은 생명의 신성한 향연의 다른 쪽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Song of Myself”의 세 번째 가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내 몸의 어느 기관도 어느 기질도, 그리고 인간미 있고 순수한 다른 사람의 어느 기관도 어느 기질도 버릴 것이 없다, / 한 치도 한 푼도 나빠서 못 쓸 것은 없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느 것이 덜 중하라.” “Song of Myself”에서 노래하는 Walt는 신비로움에 휘감긴 야릇한 고통을 향해 자신의 오관을 열고 삶의 고향 한 복판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오케스트라를 듣는다.

Now I will do nothing but listen,
To accrue what I hear into this song, to let sounds contribute toward it.

I hear bravuras of birds, bustle of growing wheat, gossip of flames,
clack of sticks cooking my meals,
I hear the sound I love, the sound of the human voice,
I hear all sounds running together, combined, fused or following,
Sounds of the city and sounds out of the city, sounds of the day

12) Edwin H. Miller, “Passage to More than India!” in his *Walt Whitman’s Poetry: A Psychological Journe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9), p. 199.

13) Malcolm Cowley, “Introduction” to *Leaves of Grass* (New York: Viking Press, 1959), p. 9.

14) Clarence Darrow, “Walt Whitman,” in *Verdicts Out of Court*, ed. by Arthur Weinberg and Lila Weinberg (Quadrangle Books, 1963), pp. 170-85. Recit. from *Poetry Criticism*, p. 371.

and night, ...

I hear the chorus, it is a grand opera,
Ah this indeed is music--this suits me.

(“Song of Myself,” 27)

Whitman의 Walt는 그리스도적 초월주의자이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초월적 비전은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는 종말을 예고하는 묵시록의 어두운 예언 대신에 우주적 성의 역동적 사랑의 비전을 찾는다. Whitman의 시에서는 캘비니즘의 교리에서 죽음을 연상시키는 말들은 모두 삶을 찬미하는 말들로 바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행되던 속죄와 대속의 의식은 지상의 모든 존재들이 참여하는 삶의 향연이 된다. 시인 Walt의 감각에 와 닿을 때 지상의 모든 무생물체들은 살아 움직이고,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의 짝이 되며, 모든 존재는 스스로 정당해진다.

And I know I am solid and sound,
To me the converging objects of the universe perpetually flow . . .
Through me the afflatus surging and surging . . . through me
the current and index.
The embrace of apprehension sanctifies all that the “soul” takes
into itself--
I and this mystery here we stand. ...
I pass death with the dying, and birth with the new-washed babe ...
and am not contained between my hat and boots,
And peruse manifold objects, no two alike, and every one good,
The earth good, and the stars good, and their adjuncts all good.
I am the mate and companion of people, all just as immortal and
fathomless as myself,
They do not know how immortal, but I know.

(“Song of Myself,” 20)

Whitman의 Walt는 새로운 신의 세계에 도달하는 자신의 직관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초월주의자이다. 그는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자아가 역사의 명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찬미하고 노래부른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형상으로 태어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한다. 서른 일곱의 나이에 “평범한” 인간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시인은 “죽을 때까지 “건강한” 초월주의자로 남아 있기를 기원하고, “여름 잔디의 뾰족한 잎들을 바라보며” 자연에 품긴 시원의 에너지를 “만난을 무릅쓰고” 자신의 영혼 속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깨우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삶의 질곡에서 해방시킨다.

I celebrate myself, and sing myself,
 And what I assume you shall assume,
 For every atom belonging to me as good belongs to you.
 I loafe and invite my soul,
 I lean and loafe at my ease observing a spear of summer grass.

 I, now thirty-seven years old in perfect health begin,
 Hoping to cease not till death.

Creeds and schools in abeyance,
 Retiring back a while sufficed at what they are, but never forgotten,
 I harbor for good or bad, I permit to speak at every hazard,
 Nature without check with original energy.

(“Song of Myself,” 1)

번뇌의 삶, 깨달음, 원형적 절대세계에로의 회귀의 과정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고 속세의 고통받는 범인(凡人)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Whitman의 Walt는 그리스도적 초월주의자이다. 그러나 Whitman의 초월주의는 신의 은총이 제한적으로, 사후에, 선택된 자에게만 내린다는 캘비니즘의 교리를 부정하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능력의 무한함을 믿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의 권능보다 신에 이르는 인간의 직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반기독교적이다. 그렇다면, 절대권능의 신보다 인간의 직관을 강조하는 여타의 낭만주의와 Whitman의 초월주의는 어떻게 다르며, 그것을 특징지우는 요소는 무엇일까? 다른 한편으로, Whitman의 초월주의는 신에 이르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믿으며 개인의 영혼에 직접 현현하는 신을 믿었던 Emerson의 초월주의와는 어떻게 다른가?

III. Whitman의 신, 성신(God of Sexuality)

*Natural Supernaturalism*에서 M.H. Abrams는 영국 낭만주의와 신플라톤주의적 초월주의의 연속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영국의 낭만주의를 플라톤과 기독교의 초자연주의 사상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 인본주의적 초월주의라고 정의한다. Abrams의 주장처럼, “선(善)과 합일의 근원으로부터 만물이 방사되어 악과 고통으로 빠져 들고, 원형적 선을 찾는 모험을 거쳐 다시 시원의 선과 합일로 돌아간다”는 신플라톤주의적 플롯을 낭만주의자들이 그들의 작품의 열개로 사용하고 있다는¹⁵⁾ 점에

서 신플라톤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는 자연을 은유로 사용하고 우주적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brams의 주장에는 얼마만큼의 한정이 필요하다는 Hillis Miller의 견해를 받아들이다더라도,¹⁵⁾ “현상계에서의 악과 고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神)은 정당하며” 우주는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우호적이다라고 믿음으로써 현상계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을 초월하려 한다는 점에서 신플라톤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는 어떤 형태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궁극적인 선으로 규정하며, 타락, 정신적 탐험, 득오(得悟)의 패턴으로 영적인 세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낭만주의와 신플라톤주의 사이에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나 기독교에서 현상계의 악과 고통을 초월하는 방식이 반드시 낭만주의자들의 그것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는 “신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신에 이르는 인간의 직관이 없다면 신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직관을 신의 존재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낭만주의는 영국의 낭만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에 이르는 인간의 직관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낭만주의는 영국의 낭만주의보다 훨씬 더 “낭만주의적”이다. Emerson과 그를 뒤따른 Whitman은 절대적 신이 개인의 영혼에 직접 현현한다는 유니테리언교의 교리를 믿는다. 그것은 아마 신에 대한 인간의 지위를 “지글거리며 타는 등걸불위의 거미” 정도로 생각하는 켈비니즘의 원죄사상에 대한 저항의식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미국의 역사를 유럽 제국주의 역사의 보잘 것 없는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구대륙의 역사적 진보주의에 대한 저항의식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불과 100여년 전에 Cotton Mather가 “여기 이것은 도대체 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라고 되뇌며 돌아다녔던 보스턴 거리에서 Emerson은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것들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정신은 무엇일까?”라고 되뇌며 돌아다녔다. “하바드 신학대학에서 행한 연설문”에서 Emerson은 “신은 죽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말한다”(God speaks, not spake)고 잘라 말하며 신의 현신(現身)을 지각할 수 있는 인간의 직관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 주었다. Cotton Mather와는 달리, Emerson은 이미 존재하는 “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 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초령(Oversoul, 超靈) 즉, 제도와 전통의 가리개를 벗은 “투명한 눈”(“transparent eyeballs”)에 비치는 자연신의 모습을 지각하려 했다. Emerson에게 자연은 자신의 신인 초령에 대한 거대한 은유이며 위대한 선생이다. 그의 에세이 “Man the Reformer”에서 Emerson은 인간이 어떻게 순간 순간 자신의 정신을 쇠신

15) M.H. Abrams, *Natural Supernaturalism: Tradition and Revolution in Romantic Literature* (New York: W.W. Norton, 1971), p. 169.

16) See. “Introduction” in *Contemporary Literary Critics: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ed. by Robert Con Davis and Ronald Schleifer (New York: Longman), p. 4.

(刷新)하여 초령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다.

What is a man born for but to be a Reformer, a Re-maker of what man has made; a renouncer of lies; a restorer of truth and good, imitating that great Nature which embosoms us all, and which sleeps no moment on an old past, but every hour repairs herself, yielding us every moment to a new day, and with every pulsation a new life?¹⁷⁾

자연에 대한 통시력을 강조하는 Emerson의 초월주의 철학이 우주와의 새로운 시원적 관계를 추구하는 Whitman적 자아의 탄생에 본(本)이 되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Whitman은 그의 시집 *Leaves of Grass*에서 Emerson의 요구에 부응해 “부족한 인간들 사이에 완성된 인간으로 존재하는” 시인 Walt, “한 인간의 보잘 것 없는 유산을 물려주는” 작은 인물이 아닌 “인류보편의 정신적 유산의 문을 열어주는 큰 인물”로서의 시인 Walt를 창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Leaves of Grass*의 시인 Walt는 무엇보다 현상에 놀려 무디어진 직관의 날을 깊고 예리하게 베풀어 모든 현상을 새롭게 보는 직관의 시인이며, 모든 해묵은 역사와 전통을 거슬러 자연의 상징을 재해석하고 초령에 도달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의식의 혁명을 꾀하는 목회자이다. Emerson은 그의 에세이 “History”의 첫머리에서 “모든 혁명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같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생겨날 때 그것은 한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했다.¹⁸⁾ 습관의 해묵은 껍질을 벗고 신대륙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신과 자연과 인간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려했던 Emerson의 생각은 Whitman의 마음 속에서 공감을 얻어 19세기 미국의 불만족스러운 역사를 초월하는 초월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Whitman의 초월은, 그러나, Emerson의 초월에서 한 걸음 비껴 서 있다. Whitman의 시인 Walt는 중용과 자제와 절도와 구성의 완벽함을 세상의 이치로 보고 그를 밝혀 노래로 엮는 Emerson과는 달리 밀집모자를 눌러쓰고, 펠링바지에 허리춤에 손을 얹고 비스듬히 서서 우주와 함께 숨쉬며 우주의 성(sex)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1855년 판 *Leaves of Grass*에서 Whitman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Walt Whitman, an American, one of the roughs, a kosmos,
Disorderly fleshy and sensual eating drinking and breeding,
No sentimentalist.... no stander above men and women or
apart from them.... no more modest than immodest.¹⁹⁾

17) Ralph Waldo Emerson, *Essays and Lectures* (New York: Library of America, 1983), p. 146.

18) Ibid, p. 2.

19) Walt Whitman, *Leaves of Grass*, "Introduction" by John Kouwenhove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50), p. v.

Whitman도 Emerson처럼 직관주의자이지만, Whitman의 영감(靈感)은 이치를 밝혀 얻은 것이 아니라 육감으로 얻은 것이다. Hyde가 지적한 대로, “육감을 통해 영감을 섭취해 온 Whitman은 육체를 통해 세상을 알았다. 그에게 형상을 부여한 것은 ... 그와 성장을 같이한 육감이었는데, 그것이 곧 그의 몸을 가득 채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를 교육시켰다고 할 수도 있다.”²⁰⁾ 아니면, Galway Kinnell이 말한 대로, “[Whitman]가 육체를 통해 앎을 얻었을 때, 현실은 그의 요구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유롭게 말을 찾아” 시가 되었다.²¹⁾

Whitman의 초월주의는 인간의 직관을 강조하는 점에서 낭만주의적이고, 신에 이르는 개인의 영혼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다는 점에서 Emerson적이지만, 그의 깨달음이 육감을 통해 온다는 점에서 Whitman 고유의 것이다. Whitman의 시집 *Leaves of Grass*에서 일상의 옷을 입은 자연신의 세계는 성(sex)으로 생성되고, 성으로 존재하며, 우리들의 오감(五感)에 닿아 비로소 우리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온다. Whitman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육체를 보고, 육체를 통한 지각을 통해 신과 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이해한다. “Children of Adam”의 제 3시편인 “I Sing the Body Electric”에서 Whitman은 묻는다. “만약에 육체가 영혼이 아니라면, 영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육체의 신성함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If any thing is sacred the human body is sacred,
And the glory and sweet of a man is the token of manhood untainted,
And in man or woman a clean, strong, firm-fibred body, is more
beautiful than the most beautiful face.

해묵은 전통의 껍데기를 벗기고 인간의 육체를 신이 창조한 원시의 신성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때, 그것은 우주의 신비를, 그리고 경외로운 신의 살아있는 위엄과 권력을 드러낸다. 육체가 지닌 형언하기 어려운 오묘한 성감(sexuality)으로 만물은 연결되고 그러므로 그것은 아름답고 신성하며 완전하다. Whitman은 필부필부들의 육체를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그려,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신성함과 완전함을 보여준다. “I Sing the Body Electric”에서 한 농부의 육체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래서 얼마나 완전한가?

The love of the body of man or woman balks account, the body itself
balks account,

20) Lewis Hyde, *The Gift Imagination and the Erotic Life of Property* (New York: Random House, 1983), p. 173.

21) Galway Kinnell, “Whitman’s Indicative Words,” in *The American Poetry Review*, Vol. 2, No 2 (March-April, 1973), P. 9.

That of the male is perfect, and that of the female is perfect.
 The expression of the face balks account, ...
 I knew a man, a *common farmer*, the father of five sons,
 And in them the fathers of sons, and in them the fathers of sons.
 This man was of wonderful vigor, calmness, beauty of person,
 The shape of his head, the pale yellow and white of his hair
 and beard, the immeasurable meaning of his black eyes, the richness
 and breadth of his manners,
 These I used to go and visit him to see, he was wise also,
 He was six feet tall, he was over eighty years old, his sons were
 massive, clean, bearded, tan-faced, handsome,
 They and his daughters loved him, all who saw him loved him,
 They did not love him by allowance, they loved him with personal love,
 He drank water only, the blood show'd like scarlet through the
 clear-brown skin of his face, ...

이 시의 넷째 가름에서 화자는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자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육적인 것들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다섯째 가름에서 시인은 여성의 성정을 은유로 하여 우주적 차원에서의 존재와 존속의 원리를 찾는다. 여성은 “무자비한”(fierce) 끌음성(attraction)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서 “사랑의 살을 부풀리고 감미로운 아픔”의 시간을 만들며 기쁨의 분출(奔出)을 유도한다.

This is the female form,
 A divine nimbus exhales from it from head to foot,
 It attracts with fierce undeniable attraction,
 I am drawn by its breath as if I were no more than a helpless
 vapor, all falls aside but myself and it,
 Books, art, religion, time, the visible and solid earth, and what
 was expected of heaven or fear'd of hell, are now consumed,
 Mad filaments, ungovernable shoots play out of it, the response
 likewise ungovernable,
 Hair, bosom, hips, bend of legs, negligent falling hands all
 diffused, mine too diffused,
 Ebb stung by the flow and flow stung by the ebb, love-flesh
 swelling and deliciously aching,
 Limitless limpid jets of love hot and enormous, quivering jelly of
 love, white-blow and delirious juice,
 Bridegroom night of love working surely and softly into the